

예술계 거장들 삶과 예술 영화로 만난다

“빛 되찾은 날에 감사”

16~21일 '광주극장 아트 바캉스 休' 기획전

데이비드 호크니·이타미 준·디터 람스·마리아 칼라스...
다큐 작품 상영...오늘 재즈 평론가 황덕호 관객과의 대화

데이비드 호크니, 이타미 준, 마리아 칼라스 등. 시대의 아이콘, 예술계 거장들의 삶을 영화로 만난다. 광주극장이 16일부터 21일까지 기획전 '광주극장 아트 바캉스 休'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다양한 예술분야에 이름을 남긴 아티스트, 문화예술 전반에 영향을 끼친 시대의 아이콘 등을 다룬 다큐멘터리 작품들을 상영한다. 먼저 16일 오전 10시 40분 현대 미술의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의 생애를 담은 다큐멘터리 '호크니'를 상영하며 막을 올린다. 영국의 화가이자 무대 디자이너, 사진가인 데이비드 호크니는 1960년대 팝 아트를 선도한 팝 아티스트로, 지난해 작품 '예술가의 초상' (1972)이 9030만 달러에 판매되며 생존 작가 중 '가장 비싼 작가'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영화는 사진, 영상, 인터뷰 등을 통해 호크니의 젊은 시절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변화하는 작품 세계를 그려낸다.

독일의 대표적인 산업 디자이너 디터 람스를 다룬 '디터 람스'도 스크린에 오른다. '브라운' 제품디자인 회사에서 30여년간 수석디자이너를 맡아 온 디터 람스는 좋은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 10계명'과 시대를 앞서가는 미니멀리즘 디자인으로 20세기 산업디자인의 역사를 바꿨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영화에서는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자 한 그의 삶과 디자인 철학을 만나볼 수 있다.

휴-버림을 통해 한국의 미술 드러낸 제일 한국인 건축가 이타미 준(한국명 유동룡)의 일대기가 담긴 '이타미 준의 바다'도 상영된다. '포도호텔'부터 '방주교회', '물-바람-돌 미술관' 등을 설계해 이름을 알린 그의 작품과 삶을 쿠키 캔고, 반 시계 등 건축가들의 통찰, 딸 유이화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재조명하고 각 건축물에 담긴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어낸다. EBS국제다큐영화제, 디아스포라 영화제 등에 초청됐으며 전주국제영화제에서 CGV아트하우스 배급지원상을 수상했다.

세기의 디바, 마리아 칼라스의 드라마틱한 인생과 사랑, 음악을 담은 '마리아 칼라스: 세기의 디바'도 상영된다. 그녀가 사랑하기 3년 전인 1974년 당시 인터뷰로 시작해 미공개 편지와 희귀한 인터뷰, 출판되지 않은 회고록까지 다양한 기록을 마리아 본인의 음성을 통해 들으며, 그녀의 생애를 돌아볼 수 있는 영화다.

'알랭 뒤카스: 위대한 여정'은 프렌치 요리의 거장 알랭 뒤카스가 베르사유 궁 안에 최초로 레스토랑 'Ore'를 열기까지 2년여에 걸친 여정을 담은 영화다. 세계 30개 레스토랑을 운영중이며 셰프 경력 중 21개의 미술관 스타를 획득한 그가 지난 2015년 '베르사유 프로젝트'에 발탁된 뒤 보여준 요리사이자 교육자, 사업가로서의 면모를 통해 그의 요리 철학을 살펴본다.

예술종합학교 '바우하우스'의 100년 발자취와 그 신념을 이어가는 현대의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 '바우하우스'도 스크린으로 만날 수 있다. 1919년 설립된 뒤 나치에 의해 폐쇄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교육, 건축,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준 바우하우스가 보여주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움직임'을 오롯이 담아낸 다큐다.



미국 오페라 가수 마리아 칼라스



프렌치 요리의 거장 알랭 뒤카스



독일의 산업 디자이너 디터 람스



재즈 평론가 황덕호



현대 미술의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

다큐멘터리 '블루노트 레코드'를 감상하는 자리도 16일 오후 7시 20분 마련된다. 황 평론가는 재즈 칼럼을 25년 동안 써온 재즈 전문가로, 이날 영화 상영 후 관객과의 토크 시간을 통해 재즈의 명가 '블루노트'의 과거와 현재, 재즈 뮤지션에 대한 이야기 등을 들려 줄 예정이다. 관람료 성인 8000원, 중·고생 7000원. 문의 062-224-5858. /유연재 기자 yjyou@

그린발레단 창작발레 '실낙원' 초연

17일 광산문화예술회관...진시영 미디어아트 함께 상영



그린발레단(단장 박경숙 광주여자대학교 교수)이 오는 17일 오후 5시 광산문화예술 회관에서 창작발레 '실낙원' (사진)을 초연한다.

이번 작품은 아담과 이브의 타락과 낙원추방을 바탕으로 인간의 원죄와 구원을 그린 존 밀턴의 장편 서사시 '실낙원'을 모티브 삼아 그린발레단이 제작한 창작발레로, 시 '실낙원'에 인간이 일으킨 환경 파괴의 현실을 연관시킨 작품이다. 환경 파괴의 원인을 '원죄'로, 지구 희생 노력을 '구원'의 가능성으로 표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컨템포러리 발레 무대로 기획됐다.

이날 무대에서는 진시영 미디어아티스트의 미디어 아트도 함께 상영된다. 공연은 추상과 구상의 이미지를 만들며 공간 확장 효과를 내는 미디어 아트를 배경 삼

아 무용수들이 유기적 움직임을 더해 자연과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는 무대로 꾸며진다.

박경숙 단장이 안무를 담당하고 조가영 이 연출을 맡았으며, 조성미·벨라데 노르 보예프·강동원 등 25명의 무용수가 출연해 무대를 꾸민다.

그린발레단은 지난 2012년 발레 '빛의 정원'을 시작으로 '그 강에 가고 싶다', '백설공주' 등 미디어아트와 발레를 결합한 작품들을 제작했다.

이날 공연은 무료 입장 후 감동받은 만큼을 지불하는 '감동후불제'로 진행되며, 모금액은 전액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한다.

관람신청은 광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문의 062-960-8989.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스타들 74번째 광복절 경축 배우·가수 등 SNS 기념 글

스타들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맞은 74번째 광복절을 저마다 방식으로 기념했다.

배우 김소현과 김새론, 서강준은 15일 인스타그램에 태극기 이미지를 올리고 "8·15 광복절"이라고 썼다.

배우 이상윤은 SNS에 광복절이 자신의 생일이라고 밝히며 "조금 더 나아가든 만큼 앞으로는 이날의 의미를 생각해 보며 하루를 보내볼까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빛(光)을 되찾은(復) 날(節)이라고 해서 광복절이 됐다"고 한다. 오늘 하루 잠시나마 지금의 우리나라와 우리가 있게 해준 선조들에게 감사하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덧붙였다.

권혁수는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을 것이오. 대한독립의 함성이 천국까지 들려오면 나는 기꺼이 춤을 추면서 만세를 부를 것이오"라는 안중근 의사의 명언을 적었다.

이밖에 박세완, 배슬기, 윤박 등도 광복절을 기념하는 글을 올렸다.

코미디언 겸 작가 유병재는 전날 인스타그램에 제작이체 확인 화면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나눔의 집에 1천만원을 기부한 내용이었다. 그는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라며 "광복절"이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방송인 안선영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오늘은 #광복절 #대한독립만세 단순히 휴일이 아닌, 경건하게, 이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넋들을 기리고 감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라고 썼다.

가수들의 기념 SNS도 이어졌다. 전효성은 MBC TV 캠페인 다큐멘터리 '기억'에 참여한 사실을 알리며 "감히 헤아릴 수 없겠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독립의 그 날을 기다리던 많은 분의 숭고한 정신, 희생,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밝혔다.

신성우도 태극기 이미지를 게재한 후 "74주년 광복절 국가에 헌신한 독립투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썼다. 티아라 큐리는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적었고, AOA 출신 권민아도 광복절 관련 사진을 올렸다. /연합뉴스



중국 국보 자주요 명품 도자 만나보세요

국립광주박물관 '흑백의 향연' 117점 선 보여...18일 폐막

국립광주박물관(관장 김승희)에서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 특별전 '중국 자주요 도자 명품전-흑백의 향연'이 오는 18일 막을 내린다.

특별전 '흑백의 향연'은 중국 허베이 성 현단시 초현에 위치한 도자기 가마인 자주요의 명품을 국내 최초 소개하는 전시다. 자주요 도자는 거친 태토 위에 하얀 화장토를 발라 표면을 깨끗이 단장하

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중국 1급 유물(우리나라의 국보와 같음) 13점을 포함해 중국 자주요박물관의 대표 소장품 117점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9만 255명이 다녀갈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광주박물관 큐레이터는 "어찌하면 중국 자주요 도자 명품은 원래의 보금자리인 중국으로 돌아간다"면서 "어찌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급의 자주요 도자 명품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2-570-7034. /박성천 기자 skypark@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2015~2019 대한민국국제자주요 소비자만족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리스케이거스 CES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인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수상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